

[바둑]

한국바둑리그 광주·전남 연고팀 '출발부터 삐걱'

한국 바둑리그에
서 광주와 전남 연
고팀 KIXX와 대방
노블랜드가 최하위
권을 끌고 있다.
현재 바둑리그 2

라운드를 마감한 결과 광주 KIXX와 대방 노
블랜드는 각각 2패로 1승에 목말라 있는 상태
다.

KIXX와 대방 노블랜드는 주전들의 부진에
다 팀 분위기까지 가라앉으면서 2라운드 각
각 2개임을 치르는 동안 승점을 올리지 못하
고 있다. 알맞게도 호남 형제팀은 오는 30일
부터 1승을 챙기기 위해 혈투를 벌인다.

KIXX는 바둑리그 개막 당시만 해도 '우승
후보'로 꼽혔다. 바둑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우
승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에 후한 점수를
줬다.

더욱이 올해는 '후지쓰의 사나이' 박정상과
'신산' 이창호라는 원투펀치를 장착함으로써
우승후보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라운드를 치르는 동안 밀었던 이
창호는 1승1패의 평범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박정상은 2연패를 당하는 등 제 몫을 하지 못
함에 따라 팀 성적이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특히 이 9단은 한국바둑리그 2라운드에서
대구 영남일보 이영구 6단에게 무너지며 팀
의 패배를 확인하는 아픔을 겪었다. 팀이 0-2
로 벼랑 끝에 몰린 상태에서 주장으로서 반전

'원투 펀치' 이창호·박정상 동반 부진 '우승후보' 무색

'초단 돌풍' 한상훈 연패...8개팀중 유일한 무승팀 치록



KIXX주장 이창호 9단(오른쪽)과 대구 영남일보 이영구 6단의 2라운드 대국.〈사이버 오로 제공〉

의 기틀을 놓기 위해 나섰지만 힘 한번 제대

로 쓰지 못하고 148수 수만에 물을 던진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뒤를 받치는 이희성도
2연패에 허덕이고 있고 박승철도 1패를 안고
있다. 현재까지 팀원 6명이 거둔 승수는 고작

2승.

신생팀 대방 노블랜드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주장 박영훈이 2연패를 당하고
있고 한상훈, 이성재까지 모두 연패를 당함으
로써 현재 바둑리그 출전 8개 팀 가운데 유일

한 무승팀이다.

출전선수 6명 모
두가 단 1승도 챙기
지 못하고 있다.
개막전에서 대구
영남일보에게 0-3,

완봉패를 당한 노블랜드는 2라운드에서도 강
력한 우승 후보 경북 월드메르디앙에게 0대3
으로 완패했다.

특히 에이스 박영훈은 2라운드에서 월드메
르디앙에 0-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첨
한에게 106수 만에 물을 끊는 등 베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초단 돌풍'의 주역 한상훈
도 바둑리그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2연패. 그는 KT배 월드전에서 7
연승을 거두며 도전자 결정전에 까지 진출했
던 저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바둑리그에 적
응하지 못하고 있다.

1라운드에서 대구 영남일보 흥민표를 맞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완패했던 한상훈은,
윤준상은 맞은 2라운드에서도 대미를 헌납하
며 또다시 완패했다. 바둑리그 입성 전 16승 1
패라는 어마어마한 성적과는 천양지차의 성
적이다.

이성재도 평소 호전적인 기품을 자랑하며
몸싸움을 즐기는 기품을 보여주지 못하고 2
패째를 기록하고 있다.

〈윤영기자penfoot@kwangju.co.kr〉

김영수 5단 파이팅의 승리

총보(1~173)

白 김 광식 5단
(주) 송림

黑 김 영수 5단
(빛고을교시회)

53	49	52	48	47	43	92	80	89	91	123	127
4	42	44	45	51	50	61	3	120	126		
35	71	54	46	68	61	57	88	119	118	124	
37	28	31	73	70	69	67	56	86	84	107	112
17	29	27	26	33	39	41	66	65	58	74	83
67	36	20	25	30	40	72	62	65	78	77	82
169	132	32	60	144	59	75	79	76	103	98	102
170	130	21	19	155	137	143	140	147	146	156	157
173	131	134	154	168	129	148	150	152	95	113	107
133	24	38	161	160	149	145	153	158			96
139	142	141	162	165			172	166			93
135	7	138	163	164							1
136	10	2	16	8	11	22	6				
9	13	14	5	23							
15	17										

이 바둑은 1회전에서 가장 관심
을 모았던 한판이었다. 김광식 5단

은 '호남왕좌전' 우승경력에 빛나
는 이 지역 애마어 4강 안에 드는
실력자로 평평이 나 있고 김영수 5
단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지역 교육
계의 최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곳은 실리와 공수를 겸한 요처
로 이곳을 빼았던 순간 두터움이나
실리에서 밀려 고전하게 된 원인이
됐다.

우연 흑 97 부터의 접전은 김
영수 5단의 첫번째 패인 초
반 좌변의 접전이 끝나고 흑이 43
으로 좌상귀를 공격해 왔을 때 49
의 요소를 빼앗긴 것이다.

이곳은 실리와 공수를 겸한 요처
로 이곳을 빼았던 순간 두터움이나
실리에서 밀려 고전하게 된 원인이
됐다.

우연 흑 97 부터의 접전은 김
영수 5단의 첫번째 패인 초
반 좌변의 접전이 끝나고 흑이 43
으로 좌상귀를 공격해 왔을 때 49
의 요소를 빼앗긴 것이다.

이곳은 실리와 공수를 겸한 요처
로 이곳을 빼았던 순간 두터움이나
실리에서 밀려 고전하게 된 원인이
됐다.

우연 흑 97 부터의 접전은 김
영수 5단의 첫번째 패인 초
반 좌변의 접전이 끝나고 흑이 43
으로 좌상귀를 공격해 왔을 때 49
의 요소를 빼앗긴 것이다.

이곳은 실리와 공수를 겸한 요처
로 이곳을 빼았던 순간 두터움이나
실리에서 밀려 고전하게 된 원인이
됐다.

우연 흑 97 부터의 접전은 김
영수 5단의 첫번째 패인 초
반 좌변의 접전이 끝나고 흑이 43
으로 좌상귀를 공격해 왔을 때 49
의 요소를 빼앗긴 것이다.

이곳은 실리와 공수를 겸한 요처
로 이곳을 빼았던 순간 두터움이나
실리에서 밀려 고전하게 된 원인이
됐다.

우연 흑 97 부터의 접전은 김
영수 5단의 첫번째 패인 초
반 좌변의 접전이 끝나고 흑이 43
으로 좌상귀를 공격해 왔을 때 49
의 요소를 빼앗긴 것이다.

이곳은 실리와 공수를 겸한 요처
로 이곳을 빼았던 순간 두터움이나
실리에서 밀려 고전하게 된 원인이
됐다.

우연 흑 97 부터의 접전은 김
영수 5단의 첫번째 패인 초
반 좌변의 접전이 끝나고 흑이 43
으로 좌상귀를 공격해 왔을 때 49
의 요소를 빼앗긴 것이다.

이곳은 실리와 공수를 겸한 요처
로 이곳을 빼았던 순간 두터움이나
실리에서 밀려 고전하게 된 원인이
됐다.

우연 흑 97 부터의 접전은 김
영수 5단의 첫번째 패인 초
반 좌변의 접전이 끝나고 흑이 43
으로 좌상귀를 공격해 왔을 때 49
의 요소를 빼앗긴 것이다.

이곳은 실리와 공수를 겸한 요처
로 이곳을 빼았던 순간 두터움이나
실리에서 밀려 고전하게 된 원인이
됐다.

우연 흑 97 부터의 접전은 김
영수 5단의 첫번째 패인 초
반 좌변의 접전이 끝나고 흑이 43
으로 좌상귀를 공격해 왔을 때 49
의 요소를 빼앗긴 것이다.

이곳은 실리와 공수를 겸한 요처
로 이곳을 빼았던 순간 두터움이나
실리에서 밀려 고전하게 된 원인이
됐다.

우연 흑 97 부터의 접전은 김
영수 5단의 첫번째 패인 초
반 좌변의 접전이 끝나고 흑이 43
으로 좌상귀를 공격해 왔을 때 49
의 요소를 빼앗긴 것이다.

이곳은 실리와 공수를 겸한 요처
로 이곳을 빼았던 순간 두터움이나
실리에서 밀려 고전하게 된 원인이
됐다.

우연 흑 97 부터의 접전은 김
영수 5단의 첫번째 패인 초
반 좌변의 접전이 끝나고 흑이 43
으로 좌상귀를 공격해 왔을 때 49
의 요소를 빼앗긴 것이다.

이곳은 실리와 공수를 겸한 요처
로 이곳을 빼았던 순간 두터움이나
실리에서 밀려 고전하게 된 원인이
됐다.

허영호 5단, 신예프로 10걸전 순항



박승화 꺾고 A조 선두 나서

하면서 윤혁 5단과 함께 2승 1패로 2
위 그룹으로 밀렸다.

허 5단은 리그전에서 윤혁 5단, 온
소진 3단, 진동규 3단과의 대국을 남
겨 두고 있으며, 박 5단은 김혜민 4
단, 온소진 3단과 대국을 앞두고 있다.

허 5단은 이 승리로 금년 22승8패
를 기록했으며, 꼭점을 기록한 박 5
단은 26승 12패가 됐다.

B조에서는 최근 2단으로 승단한
김수원 2단(당시 초단)이 2전 전승으
로 선두로 나섰다.

허 5단은 최근 서울 여의도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에 신예프로 10걸전 A조 본선
리그에서 박승화 5단을 184수 만에
꺾고 A조 184수 만에 밀려나 2전 전승으로 A조
선두로 나섰다.

허 5단은 대국에서 김혜민 4
단을 228수로 꺾고 A조 2전 전승으로 A조
선두로 나섰다.

박 5단은 최근 서울 여의도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에 신예프로 10걸전 A조 본선
리그에서 김승현 5단을 184수 만에
꺾고 A조 2전 전승으로 A조 선두로 나섰다.

박 5단은 대국에서 김승현 5단을 184수
만에 꺾고 A조 2전 전승으로 A조 선두로 나섰다.

박 5단은 최근 서울 여의도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에 신예프로 10걸전 A조 본선
리그에서 김승현 5단을 184수 만에
꺾고 A조 2전 전승으로 A조 선두로 나섰다.

박 5단은 최근 서울 여의도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에 신예프로 10걸전 A조 본선
리그에서 김승현 5단을 184수 만에
꺾고 A조 2전 전승으로 A조 선두로 나섰다.

박 5단은 최근 서울 여의도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에 신예프로 10걸전 A조 본선
리그에서 김승현 5단을 184수 만에
꺾고 A조 2전 전승으로 A조 선두로 나섰다.

박 5단은 최근 서울 여의도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에 신예프로 10걸전 A조 본선
리그에서 김승현 5단을 184수 만에
꺾고 A조 2전 전승으로 A조 선두로 나섰다.

박 5단은 최근 서울 여의도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에 신예프로 10걸전 A조 본선
리그에서 김승현 5단을 184수 만에
꺾고 A조 2전 전승으로 A조 선두로 나섰다.